

현대 성서 번역을 위한 도전들

사이먼 크리스프*

신현우 번역**

대한성서공회가 주관하는 번역 워크숍에 참여하여 수많은 탁월한 동료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이 개회 강연에서 나는 성서 번역자들이 새천년의 첫 십년간 그들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들의 능력을 숙고할 때 고려해야 하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 중에 몇 가지에 관해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강연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성서 번역자들이 직면하는 선택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더 문자적인 번역과 더 자유로운 번역 사이의 선택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리고 거룩한 책인 성경의 경우에는, 본문에 충실하기 위하여 원문의 단어들과 어구들을 다소 문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런데 1960년대에 혁명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유진 나이다(Eugene Nida)¹⁾에 의하면 성서 본문의 의미는 자료 언어의 형태로부터 독립된 일련의 “핵심 명제들”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이 명제들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심층 구조의 수준에서 옮겨질 수 있다. 이 명제들이 목표 언어의 문법에 따라 재배열되고 재표현되면서도 본래의 의미는 새로운 형식 속에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된 본문을 읽는 독자는 원문을 읽는 독자와 동일한 의미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된 본문은 최초의 독자들(또는 청자들)에게 원문이 미친 것과 동일한 영향을 독자들에게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설명 모델이 만들어져 성서 번역 작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결과 일상 언어로 된 많은 번역 성서들이 탄생했다. 이러한 접근은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으로 알려졌으며, 후에는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으로 재진술되어 주요 성서 번역 기관들의 번역 작업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주요 언어들로의 성서 번역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사용자가 매우 적은 언어들로 성서를 번역하는 대부분의 번역 선교사들의 작업에도 적용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성서 번역 작업들에 사용되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총책임자.

** 웨스트민스트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1) 주요 문헌은 다음과 같다. Eugen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J. Brill, 1964); Eugene A. Nida and Charles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for the United Bible Societies, 1969); Jan de Waard and Eugen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Nelson, 1986).

었다.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언어와 번역 문제에 관해서도 주요 저술들을 남겼다.²⁾ 그는 이러한 저술에서 번역에 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접근방식들을 구분하는데, 이것은 유용하다. “번역자는 저자를 가능한 한 방해하지 않고 독자를 저자에게 인도하든지, 독자를 가능한 한 방해하지 않고 독자를 독자에게 인도하든지 할 수 있다.”³⁾ 이 진술은 성서 번역자들의 기본적으로 겪는 진퇴양난을 잘 표현한다. 즉 성서 번역자들은 원문의 표현을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보존하며 독자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다른 길들을 찾든지, 본문의 본래적 형태와 구조를 희생하면서까지 가능한 한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을 나이다의 번역 이론에 적용하면, 20세기 후반의 성서 번역의 경향은 압도적으로 본문을 독자에게 인도해 가는 방향이었다.

이제 이론에 관한 토론을 접고 구체적 실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룬 주제들은 마가복음 1:4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구절은 나이다 자신에 의해서는 물론 그 후의 문헌들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성서 번역자들을 위한 실제적 훈련 세미나에서도 자주 소개되었다.

Mark 1:4 ἔετο Ἰάννης [ὁ βαπτίων ἐ τῆρήφκαϊκηρύσων βάτισμα μετα
vois ei äesin äarpiw

RSV Mark 1:4 John the baptizer appeared in the wilderness,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GNT Mark 1:4 So John appeared in the desert, baptizing and preaching.
“Turn away from your sins and be baptized,” he told the people, “and God
will forgive your sins.”

CEV Mark 1:4 So John the Baptist appeared in the desert and told
everyone, “Turn back to God and be baptized! Then your sins will be
forgiven.”

2) 핵심 문헌은 그의 논문 “Ü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 in Friedrich Schleiermacher, *Kritische Gesamtausgabe. Erste Abteilung, Schriften und Entwürfe, Band 11*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2), 67-93이다. 이것을 일부 영어로 번역한 것은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eds Rainer Schulte and John Biguene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4장에 담겨 있다.

3) 쉐라이어마허 자신은 이 두 가지 접근들이 동등한 장점을 가진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가 가진 독일 낭만주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그는 저자를 방해하지 않고 독자를 본문에게로 인도하는 길을 선호한다. 이 때 발생하는 이해의 틈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언어의 영(Geist der Sprache)에 의존한다.

헬라이어 정관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본문비평적 문제와 이와 관련된 βαπτίζων의 번역 문제를 배제하고, 이 실례가 제기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 구문이 재구성되었다. 특히 간접 화법 대신 직접 화법이 사용되었다. 둘째, 추상 명사들이 동사들로 바뀌었다. 나이다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라는 표현을 구성하는 “기초적 핵심들”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1. 요한이 X를 선포하였다(여기서 X는 간접 화법 전체를 가리킨다).
2.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3. 사람들이 회개한다.
4. 하나님이 X를 용서하신다.
5.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위에 인용된 현대 영어 번역들은 선포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화법이 더 적합하다고 (더욱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CEV는 실제로 전문 용어 ‘선포하다’를 배제한다.) 이 번역들은 추상 명사인 ‘세례’, ‘회개’, ‘용서’를 동사들로 바꾼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본문의 표현은 명확성을 위하여 희생되고 번역된 결과물은 원문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된다. 즉 현대 영어 번역의 독자는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원문의 독자나 청자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진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실례를 대강 살펴보기만 해도 벌써 여러 질문들이 생겨난다. 위에 인용된 현대 영어 번역들은 헬라이어 원문과 동일한 것을 말하는가? 나이다는 기능적 동등성 번역 이론에 따라 영어와 헬리아어가 참으로 동일한 것을 말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다른 문법적 형태들(예를 들어 추상 명사 또는 동사, 직접 화법 또는 간접 화법)이나 다른 언어들(이 경우 영어와 헬라이어)로 표현되었을 때에 변화하지 않는 의미의 핵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 논증은 언어학 연구에 토대한다. 특히 유명한 미국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에 의해 발전된 구문 이론의 초기 형태에 토대한다. 이 이론은 표면 구조의 요소들이 핵심 명제들로 다시 표현될 때 일종의 보편적인 지위를 얻는다고 본다. 즉 이 이론에 의하면 내용은 형식으로부터 거의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현대 언어학과 문학 이론의 빛으로 보면 상당히 순진하게 보인다.

기능적 동등성 이론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서 번역에 가장 자주 퍼부어진 비판은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본문의 풍부함과 다차원성을 희생함으로써 독자를 궁핍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든 예의 경우, μετανοία는 인용된 두 가

지 현대 번역들의 경우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들은 독자가 본문의 충만한 의미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더 심한 경우) 지나친 단순화를 통해 독자를 속이게 된다. 이러한 논증에 의하면, 번역을 할 때 충실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더 보수적인 번역 방식을 취하고 - 슬라이어마허의 구분을 따라 말하자면 - 독자를 본문으로 인도하는 다른 길들을 찾는 것이다.

최근에 발전된 성서 번역 이론들은 나이다와 그의 추종자들이 제안한 모델보다 훨씬 더 미묘한 상황으로 인도되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기능적 동등성 이론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밀고 간 결론을 취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것은 분명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의도된 고도로 명확한 번역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때 자립한다는 것은 본래의 독자들이나 청자들이 얻을 수 있었다고 가정되는 전반적 배경 지식과 함축된 정보를 번역을 읽는 독자들이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번역 작업을 복잡하게 하고 다양한 종류의 번역 성격들을 출판하도록 요구하는 광범위한 관련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의사소통 이론, 청중 반응, 언어학과 해석학 등의 발달, 성서학의 발전, 함축된 정보의 기능에 관한 활발한 논쟁 등이다. 문학적 작품이면서 구전 작품인 본문의 지위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도 이러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의사소통

기능적 동등성 이론으로 성서를 번역하는 것은 배관 은유(the conduit metaphor)로 알려진 의사소통 모델을 전제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발신자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수신자는 이를 성공적으로 해독한다. 이 단순한 선형 모델은 번역의 경우에 발신자/수신자(번역자)가 다음 수신자에게 동일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델로 확장된다. 그렇지만 이 모델은 아직 본질적으로 선형적 형태이며 메시지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나이다의 정의에 의하면, “번역은 자료 언어의 메시지를 수신자의 언어로 표현하되 첫째는 의미, 둘째는 문체의 측면에서 그 메시지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동등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⁴⁾ 이것은 배관 은유의 고전적인 예에 해당하는데, 객관성의 환상을 만들어 낸다고 비판받아왔다. “그것은 의미를 구체화하며 그것에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자유로이 움직이는 지위를 부여한다. 그리하여 모든 언어적 교환들이 동등한 참여자들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 은유는 등가 교환을 가정하는데 그 이유는 교환의 요점이 참여자들에게서 취하여져 보편적 접근가능성의 견지에서 구조되기 때문이다. … 배관 은유에 의하면 언어는 궁극적으로는 모두 동등하게 간주되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의미를 수집하는 작업으로서 일종의 노력이 불필요한 작업으로 환

4) Nida and Taber, *Theory and Practice* (위의 각주 1 참조), 12.

원된다.”⁵⁾ 최근에 의사소통 이론을 성서 번역에 적용한 결과 더욱 더 복잡한 그림이 발생했다.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사회문화적, 사회기관적, 담화상황적 틀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암호화와 암호해석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완전히 성공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심을 던지게 되었다. 각각의 참여자들은 그 자신의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전제들은 문화적 이해의 집합으로서 그들의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은 상당한 정도로 메시지 자체와 상호작용한다. 즉,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이 전달되는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은 이러한 전제들까지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달되어 해석될 수 있는가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한다. 위에서 관찰한 바처럼, 본문을 읽고, 번역하고, 본문의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전제들과 가정들, 선입견들과 편견들, 가치 체계들과 믿음 체계들, 본문 전승과 실천들, 세계관들,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에 관계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시도들 속에서 새로운 본문과 관련되게 된다.⁶⁾ 그 결과 성서 번역자들은 자료 본문에 관한 그들의 이해와 새로운 청중과 의사소통하는 그들의 능력에 관해 훨씬 덜 확신하며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청중의 반응

물론 청중의 반응 문제는 나이다의 기능적 동등성 이론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 최초의 독자들이 원문에 반응한 것과 동일하게 (또는 동등하게) 번역 성경의 독자가 번역된 본문에 반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능적 동등성이 이해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스 베르메어(Hans Vermeer), 크리스티안 노르트(Christiane Nord)와 같은 독일 학자들과 관련된 기능주의 번역학파에서 이 원리는 중심 강령의 지위에까지 고양되었는데, 이것은 스코포스 이론(*skopos theory*)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여기서 ‘스코포스’는 “목적, 목표, 의도, 기능”을 뜻한다.) 그런데, 이제 이 이론은 염두에 둔 청중을 위한 적합성을 명확하게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르트는 스코포스 규칙을 다음처럼 진술한다. “당신의 본문/번역이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방식 그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번역하라/해석하라/말하라/글을 쓰라.”⁷⁾ 이러한 번역 방식이 성서 번역을 위해 가지는 전체적 함축들은 이제서야

5) William J. Frawley, *Text and Epistemology* (Norwood, NJ: Ablex, 1987), 136.

6) Aloo Osotsi Mojola and Ernst Wendland, “Scripture Translation in the Era of Translation Studies”, in Timothy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8 참조.

7) Christiane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1997), 29 (Hans Vermeer를 인용함).

풀려지고 있으며, 특히 라우엔스 드 프리스(Lourens de Vries)의 작품들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⁸⁾ 최소한 그들은 기능적 동등성 이론이 가진 ‘한 치수가 모두에게 맞는다’는 사고방식에 또 하나의 도전을 가했다. 부수적으로 그들은 현대 성서 번역들의 끊임없이 증가하는 다양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언어학과 해석학

성서의 독자들은 장절로 구분된 본문을 보는데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구분체계는 언급하기 편하도록 12세기에 영국인 대주교 스티븐 랭튼(Stephen Langton)이 고안한 것이다.⁹⁾

성서 번역자들도 한 문장 한 문장을 다루며 더 큰 구조 단위들에는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바로 문장보다 더 큰 담화의 단위들이 구성되는 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또는 텍스트 언어학(text linguistics)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분야의 학자들은 문장보다 더 큰 단위의 담화 구조가 언어마다 상당히 다르므로 번역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로서, 성서의 내러티브 본문을 번역할 때 있어서 사건의 시간적 배열을 언급할 수 있다. 마가복음 6 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꽤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특히 16-20절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헤롯이 이를 듣고 말했다. “내가 목 베 요한이 살아났다.”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가 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요한은 헤롯에게 말했다.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요.”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심히 당황했으나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다.

이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본문에 제시된 것과는 약간 다르며, 다음처럼 배열될

8) 예를 들어 Lourens de Vries, “Bible Translations: Forms and Functions”, *The Bible Translator* 52:3 (2001), 306-319.

9) 물론 사본 전송 속에도 잘 발전된 본문 나누기 체계들이 있었다. 특히 히브리어 성경의 맛소라 사본의 본문 구분들과 신약 성서 사본들에서 논리적 의미 단위들을 표시하는 전통이 언급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오늘날 인쇄된 성서들에 사용되어 우리에게 친숙해진 장절 구분 체계를 가리킨다.

수 있다.

1. 헤로디아는 헤롯의 형제 빌립의 아내였다(17절).
2.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했다(17b절).
3.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헤롯의 행동을 꾸짖었다(18절).
4.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었다(19절).
5.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도록 했다(17a절).

번역자들은 이러한 구조상의 차이들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논증의 다양한 양식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원문의 순서를 보존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언어들의 경우에는 방금 인용한 마가복음의 절을 번역할 때, 독자에게 사건의 순서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서 심지어 절들을 재배열해야 할 수도 있다.

현대 성서 번역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언어학의 영역은 화용론(pragmatics)이다. 화용론이란 언어가 실생활에서 사용될 때 기능하는 복잡한 방식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실생활에서의 언어의 사용은 문법책에 담긴 방식과 다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개념은 대화적 함의(conversational implicatures)이다. 이것은 화자가 실제로 말한 것 이상을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A: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 B: “모퉁이를 돌면 정비소가 있어요.”¹⁰⁾ 라는 대화는 A가 조금만 걸어 모퉁이를 돌아가서 정비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또한 이 정비소가 열려 있고, 그곳에서 휘발유도 판다는 정보 등의 함의도 담겨 있다. 이러한 장치는 아마도 언어의 보편적 특징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함의들은 각각의 언어와 문화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어 공동체가 함께 전제하고 있는 내용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은 번역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번역에는 당연히 두 개의 언어 공동체들이 관련되는데, 이 공동체들은 각각 자신이 가정하고 있는 전제들의 집합을 가지기 때문이다. 성서에서는 마태복음 26:64에서 좋은 예가 발견된다. 여기서 예수는 그가 메시아인지 묻는 질문에 *Ὁ ἐπίτας*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이 무슨 뜻을 함축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현대 영어 성서 번역본들은 이것을 다양하게 번역한다. NIV는 ‘yes, it is as you say’(공정)라고 번역하지만, GNB는 ‘so you say’(중립), CEV는 ‘that is what

10) 이러한 예들은 한 편으로는 그라이스(H.P. Grice)에 의하여, 다른 한 편으로는 오스틴(J.L. Austin)과 쉘(John Searle)에 의하여 잘 알려져 있다(일반적 정보를 위해서는 Yan Huang,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특히 2장, 4장 참조; 성서학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Richard S. Briggs, *Words in Action: Speech Act The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Edinburgh & New York: T&T Clark, 2001]) 참조.

you say!’(부정?)라고 번역한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들에 관하여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성서 번역자들은 성서 본문 속에 담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번역 작업을 할 때 더 많은 것을 아는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합의와 화행 이론(speech act theory)을 성서 번역에 실제로 적용하면 기능적 동등성 이론이 더욱 정교해진다. 이것은 번역문이 원문과 언어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더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 기능적 동등성 이론을 더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언어가 한 가지 의미를 가진 논리적 명제들로 구성되는 것이 언어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면, 모든 본문들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의 일반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논리적 명제들이 가진 한 가지 의미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본래 (최소한 화용론의 등장 이전의) 서양 언어학의 전통이며, 이러한 언어 철학이 역사적-비평적 성서 해석의 해석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성서 번역을 위해서는 기능적 동등성 이론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낙관적이며, 독단적이며, 현대주의적인 언어관으로서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확신한다. 그러나 다른 언어 철학 전통들은 인간 언어의 명제적 성격에 대하여 훨씬 덜 낙관적이다. 그것들은 저자의 의도와 본문에 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가능성에 관하여 덜 낙관적이며, 번역 이론에 적용되면 동등성의 개념을 모두 상대화시키게 된다.¹¹⁾

함축된 정보

함축된 정보가 얼마나 성서 번역 과정에서 명확해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내용들과는 다소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현대 성서 번역본들의 출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복음서를 번역할 때 ‘요르단’ 대신에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사소한 문제과 관련될 수 있는데, ‘요르단’이라고 하면 현대 중동 국가인 요르단과 혼동할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 할 수 있다. 또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였다’는 요한복음 8:56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영광스럽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뻐하였다’¹²⁾라고 번역하는

11) 이 논증들은 다음 논문에서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Simon Crisp, “Icon of the Ineffable: An Orthodox View of Language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e Translation”, A. Brenner and J.W. van Henten, eds., *Bible Translation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12) 이것은 중앙 아시아의 언어들 중에 하나로 번역한 초고를 문자적으로 옮긴 것이다.

것이 원문에 충실한 것인지 하는 문제도 이러한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출판의 차원에서는 외적인 자료들(각주, 서두의 해설, 용어 설명 및 기타 독자를 위한 정보)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특히 성서 공회 운동 속에서 길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04년에 BFBS가 설립될 때에 이 단체의 현장은 성서를 “해설이나 주해 없이” 출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학적인 확신의 선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기독교 교단들의 대표들이 모여 결렬되기 쉬운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방안이었다. 이러한 방안은 시간이 흐르면서 **교리적인** 해설이나 주해 없이 출판하는 정책으로 점차 변경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 년간 성서 공회의 전통적 사역인 성서 번역, 출판, 반포에 덧붙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헌신을 추가하면서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번역된 본문 자체가 고도로 명확해지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본문을 더욱 보수적으로 번역하되 독자들을 돕기 위해 더 광범한 자료들을 추가하게 될 것인가?

문학 이론

최근 성서 번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발전 가운데 하나는 ‘문학적 방향 전환’의 발흥이다. 그리하여 본문의 문학적 형식에 훨씬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능적 동등성 이론에 입각하여 번역할 때에는, 이미 살펴 본 바처럼 형식보다는 내용에 절대적 우선성이 부여된다. 메시지가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것의 형태는 변경되어야 했다는 것은 앞에서 분명히 파악한 바 있다. 한 편으로 이것은 물론 뻔한 소리이다. 그렇지 않다면, 충실한 번역은 오직 행간에 써 넣는 주석 뿐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특정 언어의) 형식을 (보편적) 내용으로부터 분리하는 이론에 토대하여 지난 반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다수의 성서 번역본들이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흐름은 바뀌기 시작하였다. 성서의 시, 수사비평, 담화 분석 등의 연구의 영향이 성서 번역 이론가들과 현장 번역자들에 의하여 채택되면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제적인 효과는 더욱 관용구적인 번역으로부터 다소 후퇴하여 더 문자적인 번역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 과정에서 본문의 문학적 특징들을 보존하기 위한 기법에 관하여 일반 번역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양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찰들이 성서 번역의 현장에서 통합되려면 아직도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¹³⁾

13) 이러한 방향으로의 중요한 한 걸음이 에른스트 웬들랜드(Ernst Wendland)와 티모티 윌트(Timothy Wilt)의 “문학적·기능적 동등성”에 입각한 성서 번역의 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특별히 Ernst R.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 참조.

인쇄되지 않는 번역

우리 시대의 문화가 성서 번역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영역 중에 하나는 독서의 쇠퇴인데, 이것은 성서 본문의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일차적 문맹(읽거나 쓰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된 국가들에서 이 문제는 기능적 문맹이라 불리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기능적 문맹이란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되거나 인쇄된 것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성서 번역자들이 직면하는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듣는 자들과 보는 자들을 위하여 충실한 성서 역본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디오나 비디오를 위한 번역은 인쇄물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일반적으로, 듣기 위한 번역을 위해서는 더 단순한 형태의 언어, 더 짧은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전달되는 정보의 무거운 짐을 구어체 언어에 제대로 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언급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인쇄된 본문 속에서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라고 쓰는 것은 충분히 허용된다. 왜냐하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문맥에 의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며, 이러한 정보는 눈을 통해서 쉽게 검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각을 위한 번역에서는 종종 누가 대화의 참여자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예수께서 그 시각장애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는 듣는자에 의하여 문맥으로부터 쉽사리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비디오를 위한 번역을 할 때, 그러한 정보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청자에게 보이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하다. 이 경우 동일한 정보가 좀더 극적인 형식으로, 예를 들면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부연 설명 없이) 연속된 대화를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쇄되지 않는 번역에 의해 제기되는 더 일반적인 해석학적 문제도 있다. 많은 성경 본문들이 구어체 언어에서 기원하였음을 명확히 알리는 흔적들(예를 들어 복음서의 비유들, 예배에 사용되는 시편들)을 가지고 있고, 바울의 편지들도 본래 크게 읽혀지도록 하려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기록물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승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성서(거룩한 기록물)”라고 부른다. 기록된 본문을 듣는 자에게 (더더구나 보는 자에게) 이해될 수 있게 적응시키는 것이 과연 본문 자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지 의문을 던지는 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성서 번역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충실성 문제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서 원문에 충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 문제이다. 이것은 성서 번역자들이 점점 더 고려하게 되는 문제이다.

이 짧은 강연에서 나는 성서 번역자들의 과제에 관한 인식이 최근 수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고자 하였다. 아울러 언어와 의사소통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변화하면서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우리의 견해가 영향을 받고, 번역 작업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우리의 견해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이하고자 하였다. 번역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번역을 문자적으로 하든지 자유스럽게 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번역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요약한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오직 한 가지의 훌륭한 (또는 충실한) 번역에 관하여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다양한 청중과 기능, 수요를 위해 일련의 많은 번역들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번역이란 과업을 더욱 복잡하고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더욱 흥미 있게 한다.

<주요어>(Keywords)

성서 번역, 커뮤니케이션, 청중 반응, 해석학, 언어학.

<Abstract>

Challenges for Bible Translation Today

Dr. Simon Crisp

(UBS Director of Translation Services)

The paper deals with the change of focus in Bible translation over recent years, from a relatively simple choice between more literal and more free translation, to a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approach which takes into account developments in a number of relevant fields. The case of Mark 1:4 is considered as a “classic” example of the issues facing translators, and this is followed by a survey of several areas of inquiry which have particular application to the Bible translator’s task: communication theory, audience response, linguistics and hermeneutics, implicit information and literary theory. The paper concludes with a brief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issues raised by translation of the Bible in non-print media.